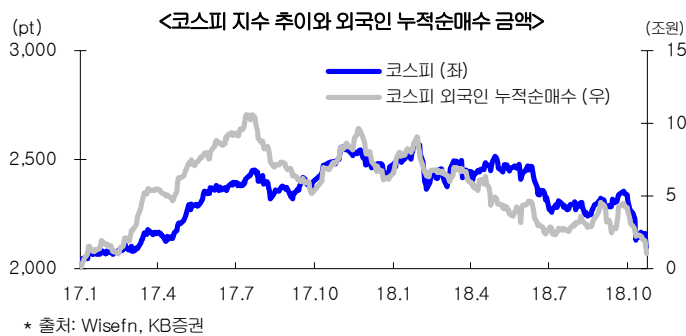


국내외 금융시장 리뷰 및 향후 전망 (2018년 11월)

국내주식 대외 악재에 노출된 환경에서 글로벌 증시 하락에 동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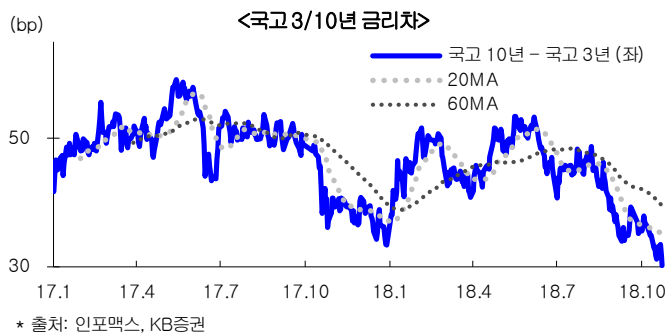
[리뷰] 10월 코스피는 10.48% 하락한 2,097.58pt를 기록 (10월 24일 기준)하였습니다.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가이드스 하향',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스탠스',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유로존 신용 리스크 우려',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 '중국 경기 둔화 우려'라는 **다섯 가지 부정적 요인에 직면**하였습니다. 10월 들어 이들 요인이 반영되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고, **코스피 지수는 2017년 초 수준**까지 되돌려졌습니다.



[전망] 단기적으로는 5대 악재의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가격 매력도만으로 반등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악재 노출에 따른 추가 조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러한 조정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통화정책 속도 조절을 통해 진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주목해 볼 때입니다. 한편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7.8배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지수가 급락했던 201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5대 악재가 일부 진정되는 경우, 가격매력도가 부각되면서 증시는 회복을 시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내채권 금통위와 크게 상관없이 금리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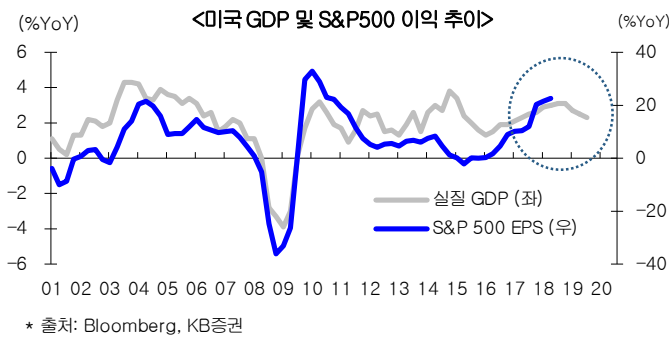
[리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0%, 10년물 금리는 2.32%로 마감했습니다 (10월 24일 기준). 10월 금통위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감 속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이탈리아 우려 완화 등으로 월초 미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채권시장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상회,

고용지표 반등으로 한은 총재의 금리인상 시사 발언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10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및 이후 추가 하락 등으로 금리는 큰 폭 하락**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예상보다 큰 2.7%로 하향한 점과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등으로 판단됩니다.

[전망] 물가안정과 같은 거시경제 요인 보다는 **가계부채나 한미 금리차 같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리인상 소수의견도 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 선반영되어 있고, 불확실성 확대 시 동결 가능성도 있어 **시장금리는 금통위와 크게 상관없이 하락할** 전망입니다. 국내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성장을 반영하는 장기 금리가 더 하락해 장단기 금리차는 축소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해외주식 미국 증시, 경기확장 기대에 의존해 있는 만큼 불안

[리뷰] 10월 S&P 500은 8.9%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7.2%, 나스닥 지수는 11.2% 하락했습니다. (10월 24일 기준). 그동안 미국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던 FANG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종목이 적게는 3.4%, 많게는 9.4% 하락하는 등 대형 IT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하루 하락률이 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점 대비 12.6%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조정'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아직 조정 영역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S&P 500과 다우 지수는 올해 성과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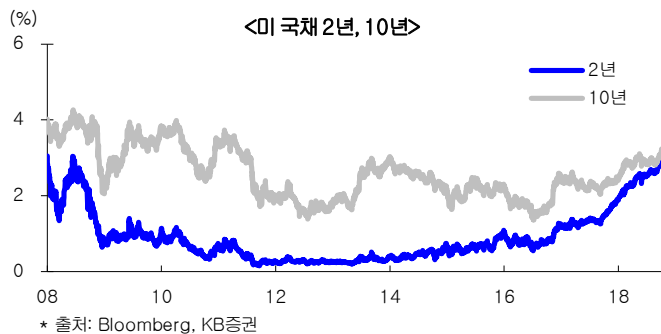


[전망] 연준의 베이지북에서 무역분쟁에 따른 비용과 물가 상승을 언급하면서 미 경기에 대한 낙관이 우려로 바뀌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미 경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S&P 500 기준으로 현재 주가지수 수준 (2,650pt) 과 추가 5% 하락 (2,500pt), 추가**

10% 하락 (2,350pt) 시 지지선 역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어 업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헬스케어·유틸리티 업종 선호 전망은 유지합니다.

해외채권 당분간 주가에 연동. 미 중간선거 주목

[리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3.15%로 마감했습니다. (10월 24일 기준). 10월 미국 채권시장은 경제지표 호조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금리인상을 단행한 9월 FOMC 의사록 및 파월 의장 등 연준 인사들이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해 약세 압력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재정 우려 재부각, 주가 급락, 그리고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전망] 미 금리는 **당분간 주가의 움직임에 주목**할 전망입니다. 주가 하락에도 미국 장기물 금리 낙폭이 2~3월보다 적은 것은 예상보다 매파적일 수 있는 연준에 대한 경계감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미국 중간선거가 예상 수준이라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으나, 예상보다 공화당 우세 시 금리 상승, 민주당 우세 시 금리 하락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본 자료는 KB증권(주)이 작성한 것으로서, 투자 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KB증권(주), 푸르덴셜생명보험(주)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변액보험상품은 투자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운용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KB증권(주)에 있으므로 KB증권(주)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SM-1810016-3